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859-2400 ~ 2410  
팩스: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음 7월 22일) 제 18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자동차 · 뿌리기계산업, 미래 먹거리

▶ 도, '융복합 협업페어' 14일부터 이틀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서

채용박람회 · 수출상담 · 기술성과 전시 등 행사 다채  
대학생 · 기업인 · 해외바이어 등 1000여명 참가예정

전북의 자동차 산업과 뿌리기계 산업 발전상을 보여주고 좋은 일자리까지 연결해 주는 '2017 자동차 뿌리기계 융복합 협업페어'가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하는 기술융합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2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기업인, 유관기관, 대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주관기관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여 군산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대 등 10여개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기획한 행사로 4차 산업혁명시대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 준비했다.

채용박람회는 전북청주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자리로 대우전자부품, 세명테크 등 도내 기업 32개사가 참가, 70여명을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 채용한다.

채용을 돕기 위해 20여개의 구직자 컨설팅기관도 대거 출동, 이력서 작성, 이미지메이킹 등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컨벤션홀 2층에서 열리는 수출상담회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등 동남아시아, 터키, 멕시코 등 10개국 14개사 바이어를 초청, 자동차 부품 및 금형 등 뿌리기계의 수출상담자원을 통해 새로운 수출관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이와 함께 미래형자동차 주제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전시하고, VR체험과 4D자동차 체험공간을 마련, 기업인과 이공계 대학생들이 가상현실/증강현실을 체험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R&D 및 BIR&D분야의 기술성과 전시관에는 20대의 차량과 48개 부품을 전시해 도내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기회를 제공 성과확산을 꾀할 계획이다. 또 도내 대학생과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캠퍼스디자인경진대회와 자동차,뿌리기계산업을 주제로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지역 자동차,뿌리기계에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뿌리기계산업 시책에 활용하고 폐회식에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행사로 예비취업자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명사특강을 준비하여 개막식 직후인 14일 오후 3시에 구글 글로벌비즈니스 김태원 상무사가 '4차 산업혁명과 창조적 혁신, 미래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1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前 개그콘서트 책임PD 서수민 프로듀서가 '꽃이 아닌 잡초는 없다!'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스카우트 전북연맹은 새만금시대 주역이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장 로비에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스마트 홍보관'을 마련하여 전라북도가 만든 값진 성과를 관람객과 함께 나누고 캠프용 캠핑카를 접목하여 잼버리의 산업화 가능성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그 동안 진행해 오던 자동차융합기술원 성과보고회를 관련 업계, 기업인, 예비취업자들 간의 소통, 공감, 어울림을 통하여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청년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융복합 협업 페어로 마련했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도내 주력산업에 취업하여 전북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전북도 자동차, 뿌리기계 기업이 도민과 예비취업자들에게 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수출상담 등을 통해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대회 장원은 저예요” 제43회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방윤수(45, 광주광역시)씨가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것에 기뻐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 靑 “김이수 부결, 무책임의 극치... 국민 기대 배반”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치·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현재소장 인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전임 소장 퇴임 후 223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

째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현재소장의 공백상태 해소를 기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연계한 정략적 시도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렇듯한 고통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로써 현재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예전 전주한옥마을 주민 생명수 ‘쌍샘’ 우물 복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7억 투자  
시, 관광객 체험광장  
소규모 공연장 등 조성  
우물제 개최 등도 추진

과거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의 생명수였던 ‘쌍샘’ 우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과거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부근 쌍샘(쌍시암)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민마을에서 전주향교 방향으로 위치했다고 알려진 쌍샘은 옛 샘과 아랫샘이 나란히 있다 해서 쌍샘이라고 불렀다.

시는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쌍샘우물 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7억을 투자해 쌍샘을 복원하고 주변에는 소규모 공연을 위한 공간과 관광객 체험 등을 위한 광장을 조성기로 했다.

또 쌍샘 우물 관련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등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한옥마을 원주민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원된 쌍샘에서 우물제 개최 등 다양한 시·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쌍샘 우물을 복원해 옛 생활풍습을 재현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우물의 활용을 통한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품격을 이어가고,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 박상기 “국정원SNS장악보고서 의혹 조사할 것”

국회 대정부질문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11일 검찰의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에 대해 의혹을 법무부가 구성 중인 ‘과거사 진상규명 조처’에서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를 언급하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선고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디도스 특별검사팀은 당시 청와대 보좌관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하면서 수백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중 하나가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였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이 2014년 5월과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반납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 재판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이 이유를 묻자 박 장관은 “2012년 4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고 중앙지검으로 해당 문건을 인계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3면 - 박성진 '뉴라이트' 맹폭  
6면 - 정부, 계란 1000만개 수매 · 비축

군민의 염원으로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더 큰 열정으로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창의적이며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제11회 금소젓갈발효축제>  
○ 기간 : 2017. 9. 15. ~ 9. 17.  
○ 장소 : 부안군 진서면 금소다용도부지